

석사학위논문

효율적인 말하기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복 실

2003년 8월

# 효율적인 말하기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김 복 실

김복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

김 복 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연구는 말하기 교육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토론 학습을 통한 말하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학습의 목적에 알맞는 지도 방안을 연구하여 토론학습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소집단 토론 활동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토론학습을 통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토론이란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아이디어, 사실, 정보 등을 공유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방편으로 남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사고와 활동양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론을 교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고력 신장과 사회 적응 능력은 물론이고 말하기 능력 신장에도 대단한 도움이 된다는 데 목표를 두었다.

토론학습을 하기 위한 지도 방안에는 토론 학습의 연간 계획, 토론 학습의 평가법,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안, 토론 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모형 개발, 토론 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모형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토론 학습의 연간 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론 학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활동의 하나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안도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토론 학습의 평가법은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점수제가 아닌 서술형으로,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 위주의 자기 자신 평가를 누가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토론 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4학년 연구자의 학급에 1년 동안 적용한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토론 수업의 과정은 준비활동→중심 활동→정리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기유발→문제 제시→탐색→토론활동→결과 정리→자기 평가의 6단계로 구안하여 적용했다. 각 활동의 중심 활동을 제시하면 동기유발단계에서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이고 문제 제시단계에서는 학습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또, 탐색단계에서는 토론을 위한 준비를 확인하고 토론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며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토론활동단계에서는 소집단이나 대집단별로 찬·반성됨을 정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다. 결과정리 단계에서는 토론의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의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토론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적용한 결과 얻은 결론은, 토론 학습을 통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 전의 예비 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 토론 학습을 체계있고 계획적으로 하려면 연간 계획 수립, 학습 훈련안, 평가법, 교수·학습 모형 등을 개발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진정한 의미의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숙한 분위기보다는 웃음이 깃든 분위기가 필요하며,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명쾌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설문지 관찰, 면담 등을 통한 연구의 결과 토론학습에 흥미를 많이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줄 알고, 연구전보다 말하기의 능력이 신장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외에도 자신감, 다른 학습에 대한 의욕고취, 협동심 등을 기르게 되는 파급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학습의 지도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및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인 의의를 얻게 되었다.



## 〈 목 차 〉

### <國文抄錄>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3. 연구 방법과 범위 .....	6
II. 토론학습 지도 방안 .....	8
1. 토론학습의 목적 .....	8
2. 토론 학습의 교육 방법 .....	9
III. 토론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의 실제 .....	23
1. 토론학습 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23
2.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 .....	30
3. 모형 적용의 실제 .....	31
4. 모형 실제 적용의 결과 .....	52
IV. 결 론	
참고문헌 .....	60
<Abstract> .....	62

## 〈 표 차례 〉

〈 표 1 〉	토론 학습 과정 .....	24
〈 표 2 〉	토론 학습 연간 지도 내용 .....	26
〈 표 3 〉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안 .....	29
〈 표 4 〉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 .....	30
〈 표 5 〉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	33
〈 표 6 〉	나의 토론 활동 기록장 .....	34
〈 표 7 〉	재량활동 평가표 .....	35
〈 표 8 〉	읽기 자료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36
〈 표 9 〉	토론학습에 대한 흥미도 .....	53
〈 표 10 〉	토론학습에 대한 참여도 .....	53
〈 표 11 〉	토론학습을 위한 근거 마련 방법 .....	54
〈 표 12 〉	토론학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	54
〈 표 13 〉	토론학습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미친 결과 .....	55
〈 표 14 〉	토론학습의 파급 효과 .....	55

# I. 서론

## 1. 연구 목적

남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사고와 활동양태는 토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여 좋은 결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화법 형식이 토의(discussion)요, 사리의 본질을 따지되 상호간에 극단까지 논의하는 화법 형식이 토론(debate)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보면 화법의 두 가지 형식을 분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사실 토의와 토론이 본래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아이디어, 사실, 정보 등을 공유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토의' 형식을 이해하게 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방편으로 '토론' 형식을 이해하게 되었다.<sup>1)</sup> 즉, 토의, 토론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사고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토의, 토론이라는 사고와 활동양태를 교육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고력 신장과 사회 적응 능력은 물론이고 말하기 능력 신장에도 대단한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말하기 교육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토론 학습을 통한 말하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학습의 목적에 알맞는 지도 방안을 연구하여 토론학습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소집단 토론 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토론학습을 통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말하기 교육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람이 불고 있다. 패러다임

---

1) 김정호(1997), 「토론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p. 132-135.

의 변화를 한 두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교수보다는 학습을, 지식보다는 실제 수행 능력을, 구성주의 관점의 부각과 전략에 대한 강조를, 상위인지 개념의 확산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재승, 1997 : 56)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의 가치나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을 실천하는 교실 현장, 특히 그 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말하기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능숙하게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능력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와 신념으로서의 말하기 능력까지도 포함된다. (박영목 외, 1996 : 202) 국어과 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역시 낱말이나 하나의 문장 수준에서 언어와 의미를 단순히 번역하는 기능이 아닌 담화(discourse)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고등 정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말하기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 표현하기까지의 모든 말하기 과정에 대하여 화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국어과 교육에서 지도되어야 학생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말하기 교육은 그 중요성과 함께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교육 개발원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57%가 말하기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교육부, 1995 : 16) 이원영 등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동 중심적 교육 방법이 학습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원영 외, 1999 : 49)

사람의 말하기 능력은 짧은 시간에 한 두 번의 말하기 활동 경험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하기 능력은 배워야 할 학습대상



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모든 기능은 말하기의 전 과정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언어 사용자가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창덕 등에 따르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가 구체적인 제재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말하기 전략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실제 자신이 말한 것,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왜, 어떻게 말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말하기가 되는지 등 말한 것에 대한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 국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타(meta)'<sup>2)</sup>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이창덕 외, 2000 : 269)

따라서 토론학습에서도 메타 인지적 접근을 통한 메타 말하기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화제에 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무슨 말을 하였는지 실수를 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말하기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하여금 자신의 말하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사고 방법을 알게 하여 말하기 과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의 토론교육은 용이하지 않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 특성이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능력의 미숙 등으로 인한 진행상의 어려움, 토론 시간의 무질서와 소란스러움 등의 이유를 들어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든지, 학생들에게 토론할 시간을 주기 꺼려하는 풍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업 전략으로서 토론학습을 들 수 있다. 토론학습은 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

2) '메타(meta)'란 대상에 대한 이야기 수준으로부터 그 이야기 자체를 논하는 수준으로서의 이동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창덕(1998 : 272)에 따르면 '메타(meta)'는 'after', 'beyond', 'among', 'behind'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로 'meta-analysis', 'meta-phrase' 등 여러 어휘에 사용된다고 함.

아니라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토론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읽기나 쓰기에 대한 비중만큼 이들 활동도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심오한 사회적 행위인 동시에 인지적인 활동이다. 학습자는 어떤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내용을 분류하고, 정교화하고, 분석하고, 순서화하는 등의 사고 활동을 통해 말하기는 물론이고 읽기나 쓰기에 필요한 사고력이나 언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을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제 소집단 토론 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토론학습을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론학습 지도 방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선행 연구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물은 말하기 교육의 특징과 말하기의 지도요소,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말하기 교육, 대화 분석을 통한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양수(1995)는 의견 나눔 입말 지도가 다른 사람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는 힘이 길러지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된다고 하였다. 학생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여,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이 향상되고 상대방의 발언에 재빨리 대응해야 하므로 사고하는 힘도 길러진다고 보았다.

서영석(1997)은 말하기 교육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대화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메타 말하기 교육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메타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 분석을 적용한 말하기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홍의순(1999)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석적인 접근을 탈피하여 총체적 접근으로 학생의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말하기 기능 신장을 모색하고자 하여 단계별로 말하기 기능을 점차 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는데, 말하기 기초 기능 지도부터 실생활에 적용하는 심화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은희(1999)는 일상 대화의 분석을 통해 일상 대화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현상과 반복 표현의 기능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대화 지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일상 대화를 직접 녹음하고 이를 분석한 것으로 대화 분석을 통해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이 연구에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김종순(1999)은 딜레마와 토론수업이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중의 하나인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의 인지양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공숙자(2002)는 메타 말하기 활동을 통한 말하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타 말하기 활동의 구체적인 지도 요소와 메타 말하기 교수 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실제 소집단 토론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메타 말하기 교육의 이론적인 토대와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특히 말하기 교육에서 메타 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인식함은 물론 현장에서 적용하여 교육적인 가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말하기 기능 신장 지도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말하기 기능 신장을 위한 토의, 토론 학습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도 있었으며 토의, 토론 학습은 전통학습에 비

하여 학업성취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학습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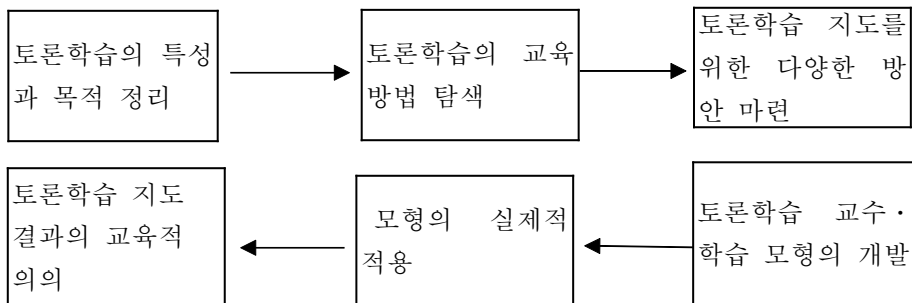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통계자료에 의한 양적 연구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토론학습 지도를 해야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접근으로 토론 학습을 실제 수업 상황에서 적용해 보고, 발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살펴본 후 확인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재 시도하는 연구 과정을 통해 토론학습 지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과 범위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우리 학교가 제주도 교육청지정 재량활동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연구자는 2002년도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평소에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기에 재량활동 중에서도 특히 주제를 토론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학교안에 기준을 두고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로 적용을 하고 그 결과도 분석해보면서 토론학습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모형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집단 토론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과제 변인, 인간 변인, 전략 변인으로, 이런 변인에 따라 토론 대화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토론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토론학습을 통하여 얼마나 말하기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 비중을 두어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 방법이 타당한가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기평가, 관찰 활동 등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상 및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의 범위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론학습만을 중심으로 한다. 피아제의 연구<sup>3)</sup>에 따르면 이 단계의 학생들의 발달 수준은 구체적 조작기(7~11세)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학생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은 서로 다른 사고 양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이론적인 추리 능력, 변인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추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고 하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답을 논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연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단계적인 특징을 갖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학습을 적용하고자 한다.

둘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을 연구하고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토론학습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교수·학습의 실제 적용은 소집단 토론 장면으로 제한한다. 소집단 토론은 교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담화 중의 하나로, 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대화자료를 얻고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

3) 노명완 외(1989),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 교육개발원, pp.105-106에서 재인용.

## Ⅱ. 토론학습 지도 방안

### 1. 토론학습의 목적

토론학습은 특정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학생들의 상반된 구두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성과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여 알게 하는 일종의 교수법이다. 토론의 과정은 문제를 확인하고 쟁점을 부각시켜서 각 주장이 갖는 장단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토론학습에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으로 토론에 임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그 나름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sup>4)</sup>

토론학습에서 토론자들의 상반된 주장을 들으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나아가 상호간의 서로 다른 견해나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또 자신과는 다른 주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방법은 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고등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의사소통능력이다. 따라서 토론 학습은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또 토론학습은 토론 참여자만이 아니라 토론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해당 주제의 의의에 대한 명료성을 심어주며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토의는 목적에 대한 해결안의 모색을 시도하고 토론은 이미 나와 있는 해결안에 대한 찬반 혹은 가부의 결정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회의 진행과정에서 주어진 현안에 대하여 회의 참가자가 난상 토의를 거쳐 해결안을 모색하고, 다시 해결안을 놓고 가부간에 진지한 토론을 벌여 최종안을 확

---

4)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1999), “토론과 토론학습”,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정하는 관행이다.

토론을 토의에 견주어 설명하면, 토의는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도이고 자유스러운 논의이며 토론의 전 단계인데 비하여, 토론은 해답을 상대방에게 설득하여 납득시키는 시도이고 규칙에 의거하는 논의이며 토의의 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토론은 한 가지 논제(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두 팀 사이에 실시하되 인원, 진행방법, 심사방법 등의 규칙을 준수하고, 논의는 단정이 아니라 반드시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두 팀의 우열을 가리는 심사위원의 판정이 따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토론의 목적은 문제해결, 의사결정, 진리의 탐구 등에 있다.

또 토론학습은 토론 참여자만이 아니라 토론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해당 주제의 의의에 대한 명료성을 심어주며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좀더 생생하게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2. 토론 학습의 교육 방법

효율적인 토론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집단 (4~6명)을 구성하여 어떤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소집단 토론이라고 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토론을 벌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진정한 토론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즉 충분한 집중, 참여,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소집단 인원 구성은 적으면 4명 많으면 6명 정도가 적당하다. 6명이 넘으면 모둠 내의 학생들이 서로 멀리 있다보니 듣지 못하여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

소집단 토론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활동도 하나의 학

습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집단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심오한 사회적 행위인 동시에 인지적인 활동이다. 학습자는 어떤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내용을 분류하고 정교화하고, 분석하고, 순서화하는 등의 사고 활동을 통해 사고력이나 언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곧, 학습자는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고력과 언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소집단 토론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말은 부드럽고 다정스러워야 한다. 또한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말을 가치있게 생각하게 하는 것에 유의해야만 한다.

소집단 토론을 하다보면 몇몇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하여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능력은 있더라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잡담이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교사는 이들 몇몇 학생들도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집단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기이다. 즉, 학생들이 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는다면 그 토론은 성공하기 쉽다.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학생들 모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토론 주제는 가급적 학생들의 욕구나 흥미, 필요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교사가 토론 주제를 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아동의 욕구나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1) 토론 전의 예비활동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토론 주제를 주고 바로 본격적인



토론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좀더 쉽고 간단한 형태의 예비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할 수 있는 예비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많이 할수록 토론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역할극 시연

갈등 사태나 문제 상황을 간단히 역할극으로 꾸며 시연하게 하면서 토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주제가 명확해지면 자신의 주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주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설문조사

토론 주제에 대해 가족, 친구, 다른 학급, 본 학급, 또는 타학년, 학교내의 여러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토론의 근거마련이나 근거에 대한 뒷받침의 자료 등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 방법은 토론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의 비교를 통하여 사고력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 마인드 맵 등의 학습지 활용

토론 전에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인드 맵으로 나타내어 본다. 이 활동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토론 주제가 주어져도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학습지를 활용하는 것도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하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자료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 토론 주제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를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과제로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인터뷰하기

학교내의 선생님이나 그 토론 주제와 관련이 된 전문가를 찾아가서 간단한 인터뷰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게도 되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다. 초등학생으로서는 번거롭거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생생한 체험도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토론 주제를 제시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 본 후 느낌이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게 한다. 그리하여 나중에 토론 주제를 직접 의논해서 정하게 해볼 수도 있다.

### 2) 토론을 위한 전제조건

토론을 시켜보면 흔히 몇몇 아동들만 그 토론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방관자나 심지어는 방해자가 되어, 그 토론이 매우 산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에 참여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토론에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소집단 구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토론 경험이 적을수록 소집단별로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소집단 구성 인원은 4~6명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야만 소외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게 된다.

또한 소집단 구성에서도 반드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할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즉, 토론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사회자, 찬반 토론자 등의 분명한 역할을 부여해야만 책임감을 느껴 토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을 인식하고 배우게도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토론을 할 기회가 되면 역할을 바꾸어 해 나감으로써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의 중요성만큼이나 듣기의 중요성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협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는 소집단의 구성원간의 친밀감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만일 아직 서먹한 관계라면 먼저 친교를 위한 게임이나 협동놀이, 협동학습 등을 통하여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만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주의 깊게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 자연스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학년인 4학년 학생들에게는 토론에 앞서 토론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주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다음 모범적인 토론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시청하게 하거나 시범 토론을 준비하였다가 보여줌으로써 규칙들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토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분위기나, 동기 유발, 관심있는 주제 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평소에

도 이러한 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 3) 토론 과정(방법) 지도

흔히 토론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아동들 상호간에는 배울 것이 없고 교사나 성인들에게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자신이 아동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주의해서 듣는다면 아동들도 점차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토론을 교사 중심으로 이끄는 것은 토론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되며 당연히 그 토론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아동들끼리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교사는 끼어 들거나 간섭하지 말고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경청하면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는지를 살피고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 판단해서 꼭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 다음은 토론의 과정에 대해 주된 항목별로 살펴본 것이다.

#### (1) 토론 주제 파악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거나 때로는 그 주제를 잘못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 주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토론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가며 말해보게

한다. 또는 토론 과정에서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이를 학생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토론의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만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말을 골라낼 수 있고 또한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말을 적게 할 수 있다.

## (2)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을 하다보면 학생들은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왜 토론 주제에서 벗어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벗어나게 된다. 하나는 토론 주제 자체가 학생들에게 흥미롭지 못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토론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다면 주제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흥미로운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 흥미롭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주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질문을 던져 그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그렇다고 교사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알맞다.

## (3) 반복과 화제 변경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거나 혹은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할 수도 있다. 즉,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신감의 부족으로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없기에 ,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라도 그 토론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이 때에는 그 학생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화제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버리는 것이다. 부주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다른 학생들도 그 화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최소한 화제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만약 바뀌어진 화제를 다른 학생들이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화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래의 화제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특별히 어렵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말이 나오면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래야만 참여한 학생들이 그것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 화자 자신의 이해정도도 되새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토론의 방해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충동적으로 가로막아서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사는 그 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들어보게 하거나 몇 분 동안 그 학생은 듣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간단하게 기록하도록 하게 한다.

보통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자주 가로막는 것은 서너 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너무 조급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중심성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학생에게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 (5) 참여 유도

토론 시간에는 되도록 손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즉 다른 친구의 말을 전부 듣고 난 후, 특별한 신호나 교사의 지시가 없이 말을 하고 싶은 학생이 말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교사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대집단(30명 이상) 토론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소집단 토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토론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각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간단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다가 그 후 계속해서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교사는 어떤 생각이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때로는 굳이 그런 학생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한 두 번 쳐다보거나 눈짓을 하여 토론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성격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는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학생을 위해서 교사는 특별한 노력, 즉 마음을 열게 하는 분위기를 늘 조성함으로써 토론 시간에도 긴장하거나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이끄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6) 교사의 질문

교사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교사는 간간히 질문을 하여, 학생 자신이 말한 내용을 좀더 정교화하게 하거나, 분류-정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칫 질문을 많이 하면 그 토론을 중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말한 것이 너무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되었을 때만 하도록 한다. 부정적인 질문은 삼가도록 한다. 또한 질문하는 목소리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부드러워야 한다.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한 교사의 질문은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된다.

#### (7) 토론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

토론을 하다보면 새로운 낱말이나 개념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하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좀더 자세히 말하다 보면, 서로의 혼란이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질문은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또한 말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유용하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학생들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에 토론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친구의 편만을 든다거나, 싫어하는 친구가 말한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 등의 경우가 생겨 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교사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학생들이 이들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소집단의 구성원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4) 주제의 선정

토론에서 주제의 선정은 토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



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제시된 토론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토론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의 주제는 참가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는 교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토론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 학급의 토론 주제이다.

- 밤 9시 이후 TV시청은 바람직한가?
- 학교에 게임기를 가져와서 해도 되는가?
- 컴퓨터 오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 초등학생의 컴퓨터 통신용어(온어)의 사용은 바람직한가?
- '사랑의 매'와 같은 체벌은 바람직한가?
- 일기는 날마다 꼭 써야 하는가?
- pc방에 가는 것은 과연 해로운가?
-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친 심청이의 행동은 바람직한가?
- 만화책은 우리에게 유익한가?
- 초등학생이 동요보다 대중 가요를 더 즐겨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가?
-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5) 분석이나 설명

어떤 사실에 대해 분석하거나 그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듯 어떤 것에 대해 분석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제는

여러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자율 학습은 꼭 필요할까? 아니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유는?’ , ‘학교에 장난감을 갖고 오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금지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유는?’ , 컴퓨터 오락은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등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주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생활이나 아니면 책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단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요구하는 주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능하다면 대안이 많은 것이 좋다. 학생들은 이들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6) 성공적인 토론을 위한 아이디어



토론에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론의 전 과정을 녹음해서 이를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토론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서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른 사람을 방해한 일은 없는지, 주제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반성해 보게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토론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좀 더 좋은 토론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물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은 학생들 뿐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서 교사 자신이 한 행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토론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한 토론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게 하는 것이다. 토론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별 부담없이 토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해 본다. 이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수정

하거나 덧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토론된 것을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함으로써 그 토론이 좀더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 아무튼 이 활동은 학생들 자신이 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할 수 있고 토론 후의 추후 활동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 물론 이를 통해 배운 것은 다음에 토론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정한 학생이 토론의 전 과정이나 또는 중요한 내용을 적게 할 수 있다. 토론이 끝난 후에 그 학생은 자신이 써 놓은 것을 전체에게 읽어 준다. 이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토론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하거나 중요 내용을 쓰게 하면, 토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학급 친구들에게 그 토론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 7) 패널 토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집단 토론은 패널 토론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즉, 주제를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사전에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청중들 앞에서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 학생들이 모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원하는 학생들을 몇몇 지명해서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처음에는 토론을 잘 하는 학생들을 뽑아, 패널 토론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패널 토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주제를 정하는 일이다. 토론자들의 위치를 미리 정해둘 필요도 없고, 토론에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하도록 할 필요도 없다. 일단 자리에 앉아 토론을 시작하게 한다. 토론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 이 때 청중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론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 토론이 끝난 후에 발표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이 때 청중들의 반응도 첨가한다.

때로는 학급 학생들을 몇 집단으로 나누어 패널 토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집단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게 할 수도 있고 모두가 같은 주제를 다루도록 할 수도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면 토론이 끝난 후에 정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게 하여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도록 한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의 학생이 그 토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때로는 특정 학생이 말을 반복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당장 그 학생을 지목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다른 집단이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게 하여 그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 Ⅲ. 토론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의 실제

#### 1. 토론학습 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1) 연구 대상

(1) 실행기간 : 2002. 03. 01 ~ 2003. 02. 28

(2) 대상 : 제주서초등학교 4학년 사랑반(2반)

우리학교는 제주도교육청지정 재량활동 시범학교로 2001. 03. 01 ~ 2003. 02. 28 까지 2년동안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재량 활동 영역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정하였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주제를 토론 교육과 사회탐구(현장체험학습)를 활동영역으로 정하고, 범교과 학습에는 인성교육과 ICT(정보통신 기술)교육을 지정하여 지도하였다.

이 논문과 관계된 것은 주제를 토론 교육이며, 토론교육의 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를 토론 교육은 3~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기초에 연간 계획(재량 활동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세웠는데 주제 영역, 토론 주제, 학습지, 평가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실제의 토론학습은 대집단토론으로서 1개월에 1회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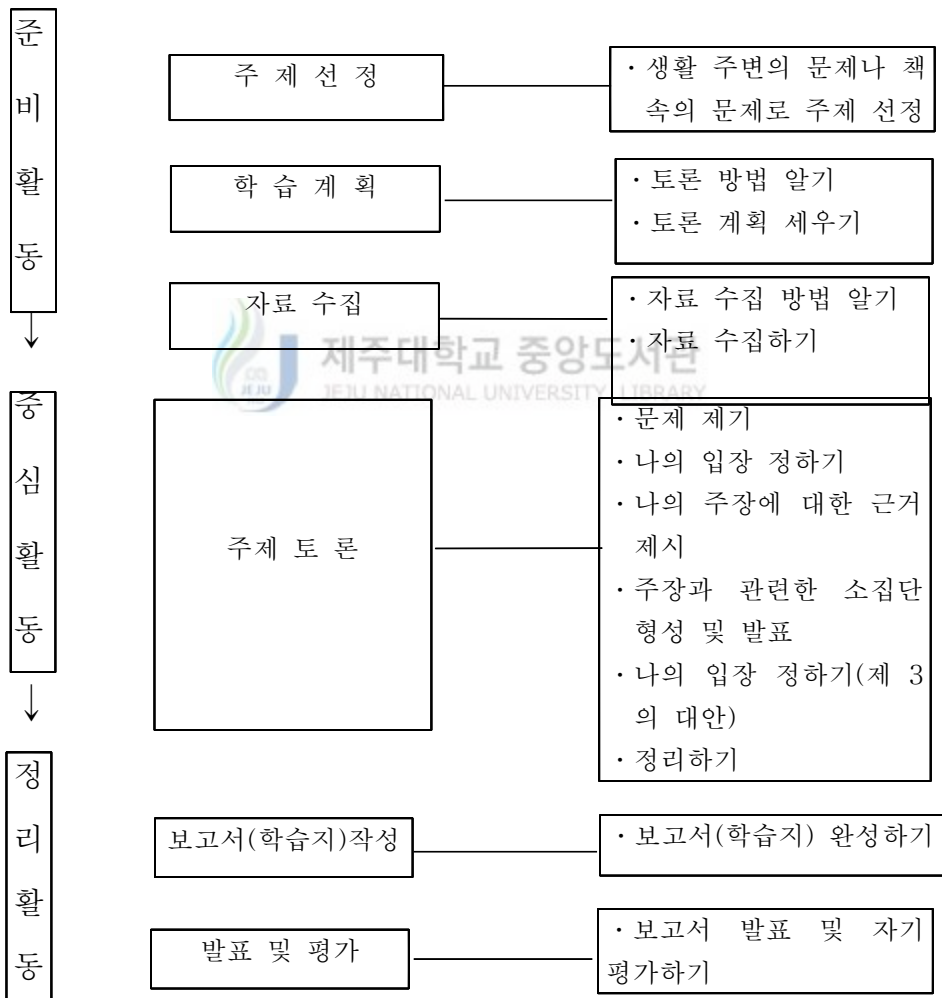
연구자는 먼저 토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예비 활동을 계획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토론의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힌 후에는 아침 자율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소집단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1개월에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대집단토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 2) 토론 학습 과정

학년 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생활 주변의 문제, 책 속의 주인공 행

동에서 토론 주제를 정하여 나의 생각을 근거를 토대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동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제 토론 학습 과정은 우리 학교안으로서 다음과 같다.

< 표 1 > 토론 학습 과정<sup>5)</sup>



5) 제주서초등학교(2002), “학습자 중심의 재량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제주도교육청지정 재량활동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p.36.

### 3) 연간 지도 내용 선정

연간 지도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주제 영역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바람직한 나의 선택’, 학교 생활과 관련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전체적인 생활과 관계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주제 영역에 따른 토론 주제를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정하였다. 특히 주제 선정시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 관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많은 주제들 중에서 아동들과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토론 주제를 확정하게 되었다. 연간 토론 주제는 학기초(3월 중)에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예고하여 주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연간 지도 내용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연초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체계적으로 토론 지도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미리 주제가 선정된 것을 예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한 내용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토론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1주일에 1-2회 정도 쉬운 주제를 가지고 소집단별로 토론을 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때에도 주제를 미리 알려주고 적절한 근거를 준비하게 한 후 토론을 시켜 보는 것이 좋다. 혹은 토론은 하지 않는 대신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드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나중에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토론 방법을 익히게 되면 주제를 직접 정하게 한 후 준비시간이 없이 토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근거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토론이 미숙한 중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는 역시 주제를 미리 제시하여 준 후 알맞은 근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토론이 시작되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당황하지 않게 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 표 2 >는 우리 학년·학급의 토론학습 연간 지도 내용의 계획이다.

< 표 2 > 토론 학습 연간 지도 내용

활동 영역	주제 영역	학습 내용	차시	비 고
주제 토론	바람직한 선택	① 밤 9시 이후 TV시청은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1-2/7	학습지①, ② 개인평가지①
		② 선이의 거짓말은 과연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3/7	학습지①,② 개인평가지①
		③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과연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4-5/7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④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친 심청이의 행동은 과연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6/7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⑤ PC방에 가는 것은 과연 해로운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7/7	학습지①, ② 개인평가지①
	즐거로운 학교 생활	① 학교에 게임기를 가져와서 해도 되는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1/4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② '사랑의 매'와 같은 체벌은 꼭 필요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2-3/4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③ 일기는 매일 꼭 써야 하는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4/4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더불어 사는 우리	① 컴퓨터 오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1/3	학습지①, ② 개인평가지①
		② 동요보다 대중 가요를 즐겨 부르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2/3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③ 컴퓨터 통신용어(은어)의 사용은 바람직한가? • 타당한 근거를 들며 주장하고 토론 후 생각 정리하기	3/3	학습지① 개인평가지①



#### 4) 토론 활동 평가법

다음은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법이다.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점수제가 아닌 서술형으로,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 자신의 자기평가 위주로 누가 기록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해서도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평가 방침

- (1) 아동 활동 전반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 수량화를 지양하고, 활동 과정을 중시하며 자기 평가에 중점을 둔다.
- (2) 평가 결과는 점수제가 아닌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 2) 평가 관점

- (1) 활동을 위해 성실히 준비를 했는가?
- (2)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나?
- (3) 타당한 근거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폈는가?
- (4)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하여 더 넓혀갔는가?
- (5) 활동 내용에 창의성이 엿보이는가?

##### 3) 평가 방법

(1) 자기 평가법	(2) 행동 관찰 누가 기록	(3) 면담, 상담 등의 방법
타당한 근거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폈는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넓혀갔는지에 대하여 서술형이나 3단계 척도법으로 누가 기록한다.	교사가 평상시의 행동 뿐만 아니라 활동상황(준비성, 적극성, 창의성, 협동성, 발표력) 등을 누가 기록한다.	면접법, 문제 인식, 주장 내세우기, 주장에 대한 실천여부 등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 상담을 통해 본다

또한 재량활동 개인 평가표를 마련하여 자신의 토론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토론에 대한 소감이나 새롭게 안 사실 등을 더 기록하게 하여 다음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사용했던 토론 활동 개인 평가표이다.

### 토론 활동 개인 평가표<sup>6)</sup>

2002. . . ( 토 )		4학년 반 번		이름	활동주제			
활동 내용				자기평가	교사평가			비고
					상	중	하	
모듬 활동	• 주장이 일관되었는가?							
	•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정확하고 타당한가?							
	•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평가 기록 방법		잘함 : ◎    보통 : ○    노력을 요함 : △						
【활동하고 난 소감】								

6) 제주서초등학교(2002), "4학년 재량활동 프로그램", p.72 .

### 5)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안

토론 학습 지도를 위한 예비 활동으로서 우선 학습 훈련안을 마련하여 간단한 토론 주제를 제시한 후에 적절한 근거를 대면서 말하는 연습을 시켰다. 소집단별로 연습을 하고 발표의 기회를 가져 학생들 스스로 훈련안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다음 < 표 3 >은 우리 학급의 발표 학습 훈련안이다.

< 표 3 >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안

상황	말하는 요령(말본)	방 법
의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는 ~이고, 둘째는 ~라고 생각합니다.</li> <li>•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li> <li>•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고, 다른 하나는 ~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럽게 말하기.</li> <li>•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기</li> <li>• 알맞은 크기로 말하기</li> </ul>
찬성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도 ○○의 생각에 찬성합니다.</li> <li>•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li> <li>•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기</li> <li>• 짹끼리 마주보고 말하기</li> </ul>
반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의견을 듣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li> <li>• 제 생각은 방금 ○○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하는 사람에게 감정이 섞인 말 쓰지 않기</li> </ul>
보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에도 ~이 있습니다.</li> <li>•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입니다.</li> <li>• ~뿐만 아니라 ~도 있습니다.</li> <li>• ○○의 말에 ~을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할 제재를 만들어 말본에 맞게 말하기 혼자서 → 짹끼리 → 모듬원끼리</li> </ul>
질문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의문점이 있는데 그 까닭을 말해 주십시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고 묻기</li> <li>• 불확실한 것이나 의문점을 묻기</li> </ul>
수정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비슷하지만 ~이면 어떨까요?</li> <li>• ○○의 생각과 ○○의 생각을 묶어 보면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대로 말해보기</li> <li>• 말본에 말 넣어 말해보기</li> </ul>

## 2.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

우리 학교의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의 모형은 < 표 4 > 와 같다.

< 표 4 >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sup>7)</sup>

과정	학습 단계	활동 내용	시간 (분)	주요 전략 및 유의점
준비 활동	동기 유발 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분위기 조성</li> <li>• 토론 주제와 관련된 생활 경험이나 마인드 맵 또는 역할극 시연 등의 활동하기</li> <li>등을 발표하기</li> <li>● 학습 문제 제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주제를 제시하기</li> <li>• 마인드 맵</li> <li>• 예비 활동하기</li> </ul>
중심 활동	탐색 토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을 위한 준비 확인하기</li> <li>• 필요한 자료 수집과정 발표하기</li> <li>● 토론을 할 때 유의할 점 알아보기</li> <li>● 주제 제시하기</li> <li>● 소집단 토론하기(혹은 대집단 토론)</li> <li>• 자신의 입장 정하기</li> <li>• 찬성 팀과 반대 팀의 주장 발표하기</li> <li>• 서로의 주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하기 (찬성 측→반대 측, 반대 측→찬성 측)</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li> <li>• 다양한 자료 준비하기</li> <li>•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기</li> </ul>
정리 활동	결과 정리 자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결과 정리</li> <li>• 토론 내용 정리하기 및 주요 내용 확인</li> <li>• 토론 방법, 토론 내용, 토론 과정에 대한 반성하기</li> <li>• 토론 활동 후의 느낀 점이나 처음의 생각과 바뀐 점 발표하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평가를 하며 최종의 생각 정리하기</li> <li>• 새롭게 안 사실등을 정리하기</li> </ul>

7) 제주서초등학교(2001), “학습자 중심의 재량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제주도교육청 지정 재량활동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p.70

토론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은 준비활동→ 중심활동→ 정리활동의 과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기유발- 문제 제시- 탐색- 토론활동- 결과 정리- 자기 평가의 6단계로 구안했다. 각 활동의 중심 활동을 제시하면 동기유발단계에서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이고 문제 제시단계에서는 학습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또, 탐색단계에서는 토론을 위한 준비를 확인하고 토론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며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토론활동단계에서는 소집단이나 대집단별로 찬·반성팀을 정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다. 결과정리 단계에서는 토론의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의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토론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 3. 모형 적용의 실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연구자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학습 활동을 1년간 재량시간에 50분-60분 단위로 적용하였다.

다음은 우리 학급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토론 학습 중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의 주제선정의 이유, 교수·학습 과정안의 본시안과 그에 따른 학습지, 개인 평가표와 토론의 예비 활동으로 제시했던 읽기 자료이다.

#### 1) 주제 선정의 이유

독서는 학생들의 지혜를 넓히고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원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좋은 책을 골라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책 속의 내용을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점점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독서 토론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2) 활동 목표

- (1)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2)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지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준비물 및 사전 지도

학습 자료	교 사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읽기 자료
	학 생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이야기’ 조사 해오기
사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하여 오게 한다.</li> <li>•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미리 생각하여 오게 한다.</li> </ul>	
웹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chac.co.kr">http://www.chac.co.kr</a></li> <li>• <a href="http://www.iwol.es.kr/ppt/ppt3.html">http://www.iwol.es.kr/ppt/ppt3.html</a></li> </ul>	

4) 교수·학습 과정안(본시안)

< 표 5 >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과 정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 비 활 동	동기 유발  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 열기</li> <li>•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기</li> <li>-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 발표해 보기</li> <li>-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발표하기</li> <li>● 활동 목표 확인</li> <li>• 토론 주제 선정하기</li> <li>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바 이처, 마더 테레사 이야기 미리 조사해 오기</li> </ul>
중 심 활 동	탐색  토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준비</li> <li>• 나무의 행동 파악하기</li> <li>-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li> <li>• 자신의 입장 정리하기</li> <li>-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기</li> <li>- 자기 입장 정하기</li> <li>• 자신의 역할 정하기</li> <li>- 사회자,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 판정자 중에서 정하기</li> <li>• 정해진 자리에 앉기</li> <li>● 토론하기</li> <li>• 사회자 및 참석자 인사</li> <li>• 찬성 토론자와 반대 토론자 토론하기</li> <li>• 서로 상대측에게 질문하기(찬성측→반대측 반대측→찬성측)</li> <li>• 사회자 정리</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활동 기록장</li> </ul>
정 리 활 동	결과 정리  자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결과 발표하기</li> <li>●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해 보기</li> <li>- 진정한 사랑이란?</li> <li>- 토론 후 달라진 자신의 생각은?</li> <li>● 재량활동 개인평가표 작성하기</li> <li>- 토론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안 사실 등을 정리하기</li> <li>● 소감 발표</li> <li>● 차시예고</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활동 기록장</li> <li>• 토론 활동 개인 평가표</li> </ul>

< 표 6 > 나의 토론 활동 기록장

제주서초등학교 제 4 학년 반 번 이름 ( )				
날짜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날씨( )	장소	각반 교실	
활동 주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재량 활동 하위 영역	자기주도적 학습 (주제 토론)	
활 동 내 용	<input type="radio"/>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한 일을 모두 적어 봅시다. _____ _____ _____			
	<input type="radio"/>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에 대한 나의 의견은? _____ _____			
	<input type="radio"/>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_____ _____			
	<input type="radio"/> 토론하여 봅시다. 나의 역할은? ( 사회자,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 판정자)			
	찬 성		반 대	
	이름	이 유	이름	이 유
	<input type="radio"/> 토론을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을 적어 봅시다		_____ _____ _____	
	<input type="radio"/> 토론 후 달라진 생각이나 보충하고 싶은 내용을 종합하 여 최종적인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_____ _____			



< 표 7 >

재량활동 평가표

2002. 7. 20. ( 토 )		4학년 반 번	이름		활동주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활동 내용				자기평가	교사평가			비고
				상	중	하		
모듬 활동	• 주장이 일관되었는가?							
	•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정확하고 타당한가?							
	•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평가 기록 방법		잘함 : ◎    보통 : ○    노력을 요함 : △						
【활동하고 난 소감】								

다음은 토론을 하기 위한 예비 활동 중의 하나인 읽기 자료의 제시를 적용한 것이다.

< 표 8 > ( 읽기 자료-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은이: 셸 실버스타인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가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송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야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에게 돈이 없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엔 없어. 야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즐거움을 타고 기어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야."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 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놀자."

"나는 이젠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즐거움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  
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뭘 수도 없고... ."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  
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즐기마저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기를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밀둥 뿐이야. 미안해... ."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  
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굵은 몸뚱이를 애써 퍼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밀둥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  
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 5) 학습단계별 지도 사례

### (1) 동기유발 단계

동기유발 단계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과정이다. 즉, 토론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토론 주제에 대해 보다 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

토론 주제와 관련된 역할극을 시연한다든지, 마인드 맵으로 나타내어 발표해 본다든지, 혹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생활경험 등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주제가 명확해지고 흥미를 일으키며 토론 의욕까지 북돋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유발 단계의 수업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여러분 드디어 즐거운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와-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먼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나요? 누가 먼저 발표해 볼래요?

학생1: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슈바이처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박사와 철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고요, 오르간을 뛰어나게 연주해서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을 만큼 유명해졌어도 병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 병원을 짓고 치료하면서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불렸고, 노벨평화상까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교 사: 그렇군요. 수영이가 자세히 발표해 주었어요. 자, 다음엔 누가 발표할래요?

학생2: 예, 저는 테레사 수녀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빈민, 고아, 나환자 등을 구원하는 데 몸바쳐 일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고요. 특히 인도의 캘커타 지방의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보낼 만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 사: 예, 은진이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명하진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 말없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한 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학생3: 부모님요.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사랑을 주시잖아요.

교 사: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있었군요. 또 다른 분은 없을까요?

학생4: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중 “칭찬합시다”에서 칭찬을 받은 분들은 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교 사: 아하. 선생님도 생각나요. 선생님도 그 프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운이가 좋은 발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나무, 식물인 나무 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 들처럼 사랑을 베풀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겠나요?

학생5: 나무요? 나무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속의 그 나무 아니에요?

교 사: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나무도 찾아 보세요.

학생6: 알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맞죠?

교 사: 그래요, 맞았습니다. 축하해요!

위와 같이 동기유발 단계에서는 아동의 흥미유발과 주제와 관련된 낱말이나 문장 등을 제시하여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학습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교사는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하여 가벼운 농담이나 환호 등을 함으로써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여야만 한다. 다만 너무 소란스러워지지 않기 위한 절제된 행동도 필요하나 정숙한 분위기만을 유지해서는 결코 유쾌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2) 문제 제시 단계

이 단계에서는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대집단 토론시에는 미리 토론 주제를 알려주어 충분한 소집단 토론이 이루어진 후 실시하는 게 좋다. 다만 소집단 토론시에는 주제를 미리 알려주어 준비하는 방법과 토론 시간에 알려 주는 방법, 또한 토론 시간에 토론 주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정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직 토론이 미숙한 단계라면 흥미를 갖을 만한 주제를 학생들과 협의하여 정한 후 1주일 전쯤에 알려주어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근거들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시간을 주어야만 훨씬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처음부터 즉석 토론을 시킨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토론 자체에도 흥미를 갖기가 힘들게 된다.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서 토론 방법에 익숙해지면 즉석에서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즉석 토론을 시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을 기르며, 임기응변력과 사고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이 익숙해지면 토론 주제를 소집단별로 정하여 즉석 토론을 하는 것 역시 앞에서 말한 능력을 기르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오늘의 토론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짜아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사실은 이미 주제가 예고된 상태이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

용하였음)

학생7: 아까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보았잖아요?

교 사: 아, 그래요.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물론 방금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무에게 달라고만 했지 소년 자신은 나무를 위하여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아낌없이 주는 행동이 소년이 자라는 데 과연 도움만을 주었을까? 아니면 좋지 못한 면도 준 것은 아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무가 자신의 가진 것을 한 두 개만 주고 더는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면도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하나 하나 따져 보기 바랍니다.

학생들: 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혹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 덜 이해하고 있음이 발견되면 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토론 주제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이 전개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결과는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 (3) 탐색 단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입



장을 정하는 단계이다. 과연 자신이 찬성 쪽인가 반대 쪽인가를 정하고 입장에 따른 주제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며 토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확실한 입장과 그에 따른 적절한 근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해결한 학습지를 살펴보며 보충해 넣거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의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한 일을 차례대로 말해 봅시다.

학생8: 소년이 탈 수 있는 그네를 가지에 매게 함→시원한 그늘을 줌→사과를 줌→가지를 베어가게 함→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줄기를 베어가게 함→베어버린 밑둥을 썬터가 되게 함. 이렇게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늘 주기만 했지만 항상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교 사: 그렇군요. 소년에게 자신의 몸까지도 베어가게 했군요. 대단한 나무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혹 더 지혜롭게 사랑할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을 해 보고 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예.

교 사: 그러면 자신의 입장을 학습지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정리한다. 2분 후) 다 정리하였습니다.

교 사: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완전히 정리해서 할 것이 없는 친구들은 학습지를 한 번 더 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만일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거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교사는 여러 가지 힌트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어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순시하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알맞은 학생에게는 칭찬을, 아쉬운 학생에게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는 점도 필요하다.

#### (4) 토론활동 단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토론시 자신의 역할을 정한다. 즉. 사회자,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 판정자 중 어느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한다. 이 때 사회자는 토론 때마다 돌아가며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사회자가 할 수도 있다. 토론이 미숙할 때는 소집단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학생을 사회자로 정하는 게 좋으나, 어느 정도 익숙하면 구성원끼리 바뀌가며 사회자를 하는 것이 좋다.

토론 순서는 사회자가 인사말을 하며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시의 규칙이나 부탁의 말, 등을 하기→찬성 측에서 순서대로 발언하기→ 반대측에서 순서대로 발언하기→찬성측이나 반대측에서 상대측에게 질문 제기하기→ 답변한 후 상대측에게 질문이나 문제 제기하기→ 답변한 후 상대측에게 질문하기→사회자가 적절히 조정하며 발언이 적은 측에게 보충 발언이나 질문을 상대측에게 하기→ 계속하기→ 토론 내용 정리하기→ 사회자는 판

정자로 하여금 판정하게 하기→판정하기→사회자가 끝으로 정리하는 말을 하며 토론을 끝마치기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이제 토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모둠에서는 사회자, 찬성토론자, 반대토론자, 판정자를 정해 주세요.

학생들: (소집단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한다)

교 사: 자신의 역할을 다 정한 모둠은 손을 들어 주세요. 어머 벌써 다 정했군요. 그러면 모둠별로 열심히 토론을 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소집단별로 이루어지는 토론을 잠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 지금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양측의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을 잘 지켜 주시고, 1회의 발언을 1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경청하여 주시고, 바른 태도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판정자는 필요시 질문을 할 수 있으나 토론이 끝날 때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에서 순서대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찬성1: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아깝다거나 역을하다는 생각

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줄 때마다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사랑은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2: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신의 것은 모두 주면서도 소년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사회자: 예, 다음은 반대측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나무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나무한테 점점 많은 것을 원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소년을 보다 부지런하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2: 저도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소년이 나무에게 계속 주기만을 바랄 때 나무는 거절도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예.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대측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겠습니까?

찬성측: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도 거의 아낌 없이 주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자: 예. 누가 답변해 주겠습니까?

반대측: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중 유익한 것은 주시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사겠다면 사 주시지만 오락기를 사겠다면 사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이 되었습니까?

찬성측: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반대측: 제가 찬성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오히려 서로 주고 받을 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찬성측: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도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것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반대측: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님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무조건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나 소년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잘라버린 밑둥에서 쉬면서 지냈습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소년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성측: 답변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변하겠지만은요. 장발장도 미리엘 주교의 사랑을 잊어 버리고 은그릇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소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반대측: 답변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으니 이제 판정자는 판정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판정자: 오늘 판결은 너무 힘이 듭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판정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모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하여 거절 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대측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사랑은 자신의 몸까지도 망설임없이 준 아름답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판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둠원이 모두 박수를 친다.)

사회자: 예, 오늘 토론을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겠습니다.(모두 박수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그에 알맞은 근거를 대면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청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서 나와 상반되는 주장이나 근거를 잘 파악하여야만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주장도 당당하게 펴야하는 태도를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토론에 집중하지 않거나 발언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눈에 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 모두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도 하여 평가하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과정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처음의 자신의 생각이 토론 후에는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 점검해본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판정자가 있을 때에는 판결을 내리겠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둠별로 열심히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선생님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했다는 칭찬의 박수를 쳐 줍시다.

이제 여러분은 학습지에 토론 결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혹 처음 생각했던 입장과 달라질 수도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세요.

학생들: 예.

교 사: 다 정리했나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변함없는 친구는 손들어 보세요. 그렇군요. 처음보다 5명정도 줄었네요. 솔직히 손 들어 줘서 기뻐요. 그러면 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말해 줄래요?

학생9: 저는 처음엔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토론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 사: 좋아요. 또 다른 친구가 발표해 주세요!

학생10: 저는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 사: 그렇군요. 자신의 생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토론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을 솔직히 밝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은 진지한 토론이 이뤄진 후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모든 과정에서 충실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6) 자기 평가 단계

이 단계에서는 토론 방법, 토론 내용, 토론 과정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토론 활동 후의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안 사실 등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토론의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토론 때에는 더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의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 사: 개인 평가표를 솔직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면 활동 소감란에 기록해 주세요.

학생들: 알겠습니다.(재량활동 개인 평가표를 작성한다)

교 사: 다 정리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손들어 주세요? 아, 다 정리했군요. 그러면 소감을 몇 친구만 발표하도록 하겠어요. 누가 발표할래요?

학생10: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해야 하겠다고도 생각했어요.

교 사: 좋은 생각이군요. 다른 친구도 발표해 주세요.

학생11: 저도 이번 토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바르게 이끌어  
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 주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고요.

교 사: 그렇군요.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느꼈군요. 역시 4학  
년 사랑반 어린이답네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모두 마치겠  
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친 심  
청이의 행동은 과연 바람직한가?’ 입니다. 이 기회에 심청전을 한  
번 더 읽어도 보고,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근  
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물들은 학습지에 철한 후에 다음  
시간 준비하고 쉬세요.

학생들: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토론 활동에 대한 되돌아봄을 통하여 평가하고 모  
자란 점은 보충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점이 중요하다. 솔직한 소감을 기록  
함으로써 토론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사는  
다음 토론 시간의 주제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예고해 주  
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예고해 주지 않아도 된  
다. 끝마무리를 잘 함으로써 토론 활동에 대한 교사 자신이 학급 전체의  
토론 수준을 평가해 볼 수도 있다.

#### 4. 모형 실제 적용의 결과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 학습 교  
수·학습 모형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후, 제주서초등학교 4학년 사랑반  
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부록)를 실시하고 그 적용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9 > 토론학습에 대한 흥미도**

설문1.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흥미있다	15	39.5
②	약간 흥미있다	12	31.6
③	그저 그렇다	8	21.0
④	전혀 흥미가 없다	3	7.9

토론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지도하기 전의 경우 ‘매우 흥미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5.8%였는데, 지도 후의 응답은 39.5%로 증가하였다. 또 ‘전혀 흥미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지도 전에는 18.4%였으나 지도 후에는 7.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년 동안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소집단별 토론 학습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꾸준히 실시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 표 10 > 토론학습에 대한 참여도**

설문2.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10	26.3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13	34.2
③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2	31.6
④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3	7.9

토론학습에 대한 참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0.5%로 지도전의 26.3%보다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집단별 토론학습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예비 활동이 이에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 11 > 토론학습을 위한 근거 마련 방법

설문3.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을 위한 근거 마련은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의 생각	8	21.1
②	인터넷 활용과 텔레비전 및 책 등	19	50.0
③	설문조사나 인터뷰	8	21.1
④	기타	3	7.8

토론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인데 지도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기타가 50%이상이었으나 토론학습 방법을 지도한 후에는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근거를 찾아 보다 타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는 학생이 7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집단 토론시에 근거제시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적절한 근거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표 12 > 토론학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설문4.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있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태도	18	47.4
②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	10	26.4
③	모동별 협동하는 태도	8	21.0
④	기타	2	5.2

토론학습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는 자신감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거의 50%에 미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표 13 > 토론학습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미친 결과**

설문5.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이 실제로 말하기 능력 신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	42.1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14	36.8
③	그저 그렇다	6	15.8
④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	5.3

토론학습을 지도하기 전에는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30%정도 였는데 지도한 후의 결과는 7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집단별 토론 학습은 학생들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한 모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 표 14 > 토론학습의 파급 효과**

설문6. 재량시간 중 소집단별 토론학습을 통해 말하기 능력 신장 외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감	15	39.5
②	학습의욕이 높아짐	10	26.3
③	협동심	7	18.3
④	듣기 능력	6	15.9

토론학습의 파급 효과로는 자신감과 학습의욕 고취, 협동심, 듣기 능력 순서로 나타났다. 소집단별 토론 학습이 발표기회의 균등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학습의욕이 높아졌으며, 끊임없는 상

호작용이 필요한 토론 학습을 통하여 협동심과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토론학습의 모형 실제 적용 결과를 학생들의 설문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외에 연구자가 이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하면서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학습 방법을 지도하고 시범토론을 지켜보게 하며 토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주 함으로써 토론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토론학습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만이 토론학습을 성공으로 이끌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적인 토론학습을 통하여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은 물론이고, 파급 효과로 학습 의욕 고취와 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도 있었다. 토론을 하기 위한 예비 활동을 충분히 하기 위한 시간 마련이 어려웠고, 토론 학습이 능숙해졌어도 개인차 때문에 원활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소집단별로 역할을 정할 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토론학습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말하기 능력이 적용하기 전보다 많이 신장되었다.

## IV. 결론

국어과 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은 담화(discourse)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고등 정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말하기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 표현하기까지의 모든 말하기 과정에 대하여 화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즉 이러한 모든 기능은 말하기의 전 과정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언어 사용자가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토론 학습지도 방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토론 학습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소집단 토론 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토론 학습을 통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 전의 예비 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말하기 형태 중에도 사고력과 말할 내용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에 앞서 예비 활동을 충분히 하여야만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에 임할 수가 있게 된다. 교과와 관련하여 또는 교과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예비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토론 학습을 체계있고 계획적으로 하려면 연간 계획 수립, 학습 훈련안, 평가법, 교수·학습 모형 등을 개발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토론 수업은 가능하게 되고 토론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덜 준비된 상황에서의 토론 수업은 자칫 진정한 토론 수업의 가치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숙한 분위기보다 웃음이 깃든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숙한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긴장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심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사는 간단한 농담이나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며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명쾌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주는 데 관심을 갖고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학습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토론 주제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특히 동기 유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토론 주제가 주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독서 지도도 병행이 되어야 논리적이고, 풍부한 사고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는 평소에도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발문을 사용해야 한다. 교수활동에서도 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발문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 안내, 독서 지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획득, 주장하는 글쓰기 등을 지도하여야 하며, 비판적인 안목도 함께 길러주어야만 토론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토론 수업을 통한 말하기 능력을 기르려면 이 외에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토론 후에도 토론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자신의 활동을 반성해 보고, 새롭게 안 사실 등도 기록하게 하며 느낌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여 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칭찬할 것은 칭찬해주고,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짚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토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자료나 인터넷 주소, 읽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안내해 주어 토론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이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공숙자(2002), “메타말하기 지도 요소와 교수·학습 모형 연구-소집단 토론 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199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4-1, 국정교과서(주).
- 김광수(1993),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 김상철(1990), “구조적 비구조적 소집단 토의학습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채·박권생(1992),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과학사.
- 김태곤(2002), “학습자 활동중심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 방안”,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94), 「국어과 교육론」, 갑을 출판사.
- 노명완(1997), “말하기 듣기 교육의 개념과 탐구 과제- 97 말하기 듣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보고서”, 한국 국어교육 연구소.
- 노은희(1993), “상황맥락의 도입을 통한 말하기 지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양수(1995), “고등학교 말하기·듣기 지도 방안 연구-편갈라 주장하기식 말하기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8)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재만(1995), “대화 기법의 그림·발문 학습자료 활용을 통한 말하기 능력 신장”, 서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박창균(1999), “대화분석을 적용한 말하기 교수·학습 방법 탐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홍일(2001), “고등학교 국어과 말하기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영석(1997),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말하기 기능의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남철(1991). “소집단 사고 활동을 통한 표현 내용의 분석 지도가 말하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서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신헌재 · 이재승(2001),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 염기배(1992). “효율적인 말하기 기능 신장 교육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오덕(1989), 「우리말 바로 쓰기」. 한길사.
- 이원영 외(1999), “언어 교육 활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이재승(1997),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종훈(1991). “소집단 경험 학습을 통한 발표력 신장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정명진(1996).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순자(1993) “전체의 의사소통적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연구.
- 최향임(1992),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현섭 외 (1996), 「국어 교육학 개론」, 삼지원.
- 홍의순(1999), “말하기 기능 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개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Efficient Speaking Skills in Group Discussion

Kim, Bog-sil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an efficient teaching-learning method by exploring appropriate discussion techniques and giving importance to speaking skill in group conversation. For this purpose, an alternative method is applied to small groups and analyzed to stress speaking skills in group discussion.

Through speaking activities, participants can share their knowledge, common sense, ideas, facts and other information with each other and find a desirable solution to a problem. So it can be safely said that discussion is an important and essential method of problem-solving. Accordingly, teaching discussion skill can help students develop their speaking abilities as well as thinking faculty, and social flexibility.

Teaching method by discussion contains a yearly teaching plan, evaluation process, self-leading learning stag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system and application of its model. The yearly teaching plan is necessary for a systematic and intentional discussion method. Self-leading learning is used as a preparation for discussion.

The evaluation is operated according to a cumulative record, based on process, not achievement, on description; not grading, and on learner-centered evaluation, not teacher -centered evaluation. This study shows the achievement results of the learners at the school the researcher works at.

The process of discussion class contains the following stages: preparation, development, and arrangement. This process is also classified by the 6 stages; motivation, presentation of issue, research, discussion, arrangement and evaluation. Their main activities are as follows; The stage of motivation can help create a productive learning atmosphere. Through the presentation of issue, learners can be informed of problems. The stage of research can help them prepare for discussion and present the topic for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each group can be separated by agreement or disagreement. At the stage of arrangement, the processes and contents of discussion can be put in order. At the stage of evaluation, debaters opinions can be arranged and checked. Lastly, through the evaluation stage, debaters decision can be made and evaluated by learners themselves.

The studys conclusions are as such: the development of speaking skill can be made by thorough preparation for discussion, systematic and intentional techniques can be made by a yearly teaching plan, teaching plan, efficient evaluation method, and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ethod. Healthy atmosphere rather than one which is important for successful discussion.

The application of a teaching method by questionnaire, observation, and interview can make learners more interested in discussion and prepare them for conversational activities in various way. In addition,

the learners can cooperate and motivate each other.

In conclusion, a systematic and intentional discussion teaching method can encourage learners to acquire creativity,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efficient speaking skills.

